

마무리 말씀

2016. 10. 24. (월) 20:50~20:53 (3분)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진 용 섭

I 인사 말씀

금융감독원 원장 진용섭입니다.

작년 8월에 이어 대사님들을 다시 뵙고,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간의 금융산업 우호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어 뜻 깊은 시간 이었습니다.

먼저, 앞서 의미 있는 인사말씀을 해주신
싸란 찰른수완(SARUN Chaoensuwan) ASEAN Committee in Seoul 의장님과,
인상적인 건배사를 해주신
존 프리스티오(John A. PRASETIO) 인도네시아 대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신
아세안 각국 대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자리 해주신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과
오늘의 자리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
그리고 "Growing Together"란 의미 있는 주제로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여러 말씀처럼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이 더불어 성장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통해
함께 풀어야 할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고 받는 정신은 행복을 잉태한다'는 미얀마의 속담처럼,
오늘과 같은 소중한 만남이 지속되어
서로 간에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II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강화

오늘날 우리는 뉴노멀로 대변되는 저성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쏠 지구적이면서 동시다발적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글로벌 위기마다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최근의 한류열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공감이가 쉽습니다.

따라서 금융산업 에서도 굳건한 동반자가 되어,
각국의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III 한국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협조 요청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GDP 규모가 전세계 7위, 인구는 3위 그리고 평균 연령은 29세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이에 OECD는 2030년 무렵이면 전세계 중산층 소비의 59% 가량이
동남아에서 나올 것이라 전망하는 등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단일시장 내에 역내 자금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실물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아세안 각국 대사님들께
한국 금융회사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인프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과거 두 번의 금융위기를 기회로 바꿔 낸
지혜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기술 변화에 맞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은
현지기업 금융지원, 현지인 고용확대와 함께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각국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IV 맺음 말씀

친애하는 아세안 대사님들!

서구 중심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풍이 모이면 태풍이 된다’라는 동남아 속담처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에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낮선 한국에서
각국을 대표하여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사님들의 애국심과 열정, 노고에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서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자주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을비가 정취는 있습니다만,
비온 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